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전력 농어촌기본소득 완성도 높인다

최경식 남원시장, 국회 방문해 핵심 현안사업 국비 반영 적극 요청

최경식 남원시장은 2026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13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정부예산 확장을 위한 국회 단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며 최 시장의 국회 방문 빈도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날 국회를 찾은 최 시장은 지역구 박희승 의원을 비롯해 조계원 의원, 김대식 의원 등 여결위 소속 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 사업별 소관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들과도 면담을 통해 사업들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력히 설명하고 국회 단계 증액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남원시 주요 국회단계 증액 건의 사업은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경찰청, 총사업비 442.3억원)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문화부, 170억원) △철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국토부, 190억원) △연합형 행복가속사 건립(교육부, 213억원) △AI기반 차세대 역



최경식 남원시장은 2026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13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소중 기술 및 표준화 개발(과기부, 400억원)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복지부, 14억원) 등 남원시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남원시 안순엽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국회 단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상주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지역구 박희승 의원실, 전북자치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가고 있

다"고 밝혔다.

최경식 시장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만큼 국회의원과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요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원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최

14~15일 어린이·청소년 직접 제작한 영화 상영

순창군의 작은영화관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에서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제2회 순창군 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는 우리영화만들자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영연, 감독 여균 등)이 주최하며, 관내 어린이·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상영해 지역의 영상문화 역량을 넓히고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영화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영화

캠프를 통해 직접 기획·촬영·제작한 작품을 군민과 함께 관람하는 자리로, 총 80여 명의 영화제작 관계자와 군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초등학교들이 만든 '내 친구가 타임머신을 타고 사라진 날(유등초)', '제1회 인계매 명매라기 대회(인계초)', '이상한 나라의 솜바꼭질(풍산초)', '케이팝 지구어벤져스(육천초)', '내 친구 플라스틱 좀비(동산초)', '겨울이 올까요(적성초)' 등



다양한 개성과 상상력이 담긴 6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15일에는 청소년 영화캠프 작품인 '같이 걷는 중'을 비롯한 초등학교 6개 교의 출품작이 상영되며, 이어 스페이스온(순창읍 장류로 418)에서 '한국영화교육아카데미 씨네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하계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 완료

임실군이 사료 가격 상승 및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큰 부담과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시작된 하계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의 하계 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단은 2016년부터 추진하여 대형 첫째 43ha에서 올해 121ha까지 수확 면적을 확대하여 조사료 생산 농가 및 축산농

가에 큰 힘이 됐다.

이번 농작업 대행은 지난 8월에 시작해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11월 5일을 기점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됐다.

이번 하계조사료 수확 대행은 농업인의 수요에 맞춰 3개조로 편성되어 전문 인력과 농기계 투입으로 131 농가 121ha의 작업량을 소화했다.

하계조사료 수확 대행은 농업인들의

노동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한편, 대행료는 1물당 5,000원의 관내 최저가로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농작업 대행단은 조사료의 적기 수확을 위해 생육 상황을 파악해 작업 일자를 결정한 후 농작업 대행단을 투입하여, 조수(옛돼지, 고라니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펼쳤다.

향후에도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개선 방향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완성도 높인다

최영일 순창군수, 11개 읍·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본격 개최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13일 북흥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설명회'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9일까지 일주일간 순창읍을 비롯한 11개 읍·면을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첫날 열린 북흥면 설명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개념 △지급 대상 및 절차 △지역화폐 지급 방식 △재원 조달 계획 △향후 기금 조성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으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이어졌다.

순창군은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49개 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접수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1차 서면평가에서 12개 군으로 압축된 후 순창군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선정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는 △선제적 대응(전국 최초 기본소득 대응)



△체계적 준비(전문가 자문 12회, 실무회의 9회, 주민설명회 4,820명, 설문조사 6,344명) △실증된 효과(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 정책 효과 증명)가 꼽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은 순창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누구나 매달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번 시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함께 만들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천문과학관, 1박2일 청소년 과학캠프 2회 운영

남원시 천문과학관은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와 연계, 2025년 지역특화프로그램 남원시천문과학관 1박2일 청소년 과학캠프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총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이 과학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숙박형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남원 지역 내 학교 및 청소년 단체 소속 학생 총 4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태양망원경을 활용한 태양관측, 4D영화 상영, 전문에 초청 과학특강, 야간 천체관측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야간에는 천문학 전공자의 지도 아래 달, 행성, 딥스카이(Deep Sky)를 천체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광학투원 천문사랑 탐방'과 '조선시대 천문의기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조선시대 시간측정기인 자력투와 앙부일구 등 전통과학의 원리를 배우고 나아가 국내 과학관에서는 유일하게 전시된 자력투를 직접 시연하면서 조선시대 천문학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청년누리투어 성료

남원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인플루언서 15명을 대상으로 '청년누리투어'를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남원 누리시민제도를 홍보하고 청년층 누리시민 가입 촉진을 위해 마련, 참가자들이 남원 곳곳을 방문해 누리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체험하고, 그 과정을 SNS 또는 블로그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 3일부터 4일 양일간 관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누리투어를 추진할 계획이며, 남원시 누리집 및 공식 SNS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20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집합교육

남원시는 오는 20일 인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연 1회 법정 의무 교육으로, 사업자의 소방 안전과 서비스 위생 기준 준수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약 3시간 동안 농어촌민박 주요 내용과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응급처치 방법, 고객 응대 서비스, 위생 관리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 1차 교육은 신내면 소재지 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 교육은 그 외 12개 읍·면에 소재한 민박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개인 일정에 따라 교차 수강도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본 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수료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하반기수도시설 청소 실시

임실군이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내 수도시설 청소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실군은 매년 상·하반기에 수도시설 내 배관 및 벽체 등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수도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한 급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수도시설 청소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도물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순차적으로 청소를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단수를 할 경우에는 사전 홍보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도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수도시설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